

보행공간 절반 시설물에 잠식

광주 곳곳 변압기·진열대 등 점유…시민 통행 방해

광주대 장희천 교수팀 조사

광주시내 가로(街路)공간 중 보행자를 위한 공간은 얼마나 될까. 아직까지 보행공간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기 어렵지만 광주시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특정지점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 전체 가로공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을 맡은 광주대 산학협력단 장희천 교수팀이 최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4거리 일대의 보행 공간을 조사한 결과 갈가지 가로시설물로 인해 유효보도면적율은 73.95%에 불과했다. 고정형으로 설치된 가로시설물은 유휴나 변압기, 정류장을 비롯 생활정보지 보관대, 휴지통, 블라드(차량진입금지시설물), 노선안내도, 공중전화, 사설안내판 등이다.

여기에 상점가에서 내놓은 상품 진열대, 노점장 등의 이동형 가로적치물로 인한 죽은 공간(Dead Space)까지 포함시키자 유효보도면적율은 40~50%까지 감소했다.

가로공간에 들어선 가로시설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최대 4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일대의 보도폭은 2~6.4m 수준이다.

보도 잠식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자전거도로와 지하철 관련 시설, 교통 신호제어기, 분전함, 가로등 점멸기 등 공공시설과 이동식 광고판, 보도

주차 때문에 보행자들은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과다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다양한 재질과 색상의 공공시설물로 인해 가로환경이 어렵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의 경사 역시 훨체어를 이용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수준인 2~3%를 넘어서 밀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도 많았다. 선진국 기준치는 1~2%다. 보도폭도 사람들이 부딪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수준인 1.5m에 미달되는 곳도 있었다.

장 교수는 최소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차도로 옮기고 ▲최소폭에 미달하는 보도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며 ▲보도위 차량 진입로 개설 억제 ▲보도 경사 조정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복 시설물 제거, 가로등·신호등 등의 지주통합 설치 등 통합과 축소, 연계의 공공디자인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5개 구청을 통합하는 공공디자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육교와 변압기 등 가로시설물과 상기의 가판대 등으로 보행공간이 절반 이상 좁아진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4거리 주변 보도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적조 비켜가나…보름째 소강 상태

매년 적조에 시달렸던 여수 해역 어민과 방제당국이 올해는 적조주의 보가 발령된 지 보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강상태에 머물자 올해는 적조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적조가 뒤늦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는 데다, 특히 이번 적조가 기존 적조의 발생 및 흐름과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과 방제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여수수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여수해역은 18일 현재 적조 원인 생물인 콜로로니움 밀도가 3m 당 최고 60 개체로 소강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지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적조가 확산돼 양식장에 피해를 끼쳤는데 올해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지 보름 이상이 지났는 데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바다 수온은 25~26°C로 예년과 비슷해 수온만을 감안하면 적조가 활기를 떨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강식물성 플랑크톤이 활성화되지 않아 적조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한다”고 말했다. /체희종기자 chae@

일대에서 스스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흐름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갑자기 어떤 형태로 돌변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18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3분께 나주시 청동 김모(55)씨의 선선에서 김씨가 벌초를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함께 벌초를 하던 아들(25)은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썩은 소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아버지를 덮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족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나무 쓰러지며 덮쳐 벌초하던 50대 사망

추석을 앞두고 선산에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진 나무에 부딪히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조류가 없는 조급인 오는 23일이 피해 여부를 판가름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바다 수온은 25~26°C로 예년과 비슷해 수온만을 감안하면 적조가 활기를 떨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강식물성 플랑크톤이 활성화되지 않아 적조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한다”고 말했다. /체희종기자 chae@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구의회 의장 선거때 3천만원 쫓다” 진정서

국회의원 부인 계좌 압수수색

광주지역 기초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사실확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은 18일 “광주 모 지역 기초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의장에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갔다는 진정이 접수돼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 내용은 광주지역 모 기초의회 의장 입지자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지난 4~6월 수차례에 걸쳐 지역 국회의원 부인에게 3천여만원을 쫓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돈 가운데 일

/최구일기자 cki@kwangju.co.kr

내유침 김충 7586

내 저래?
남아서 유흥하라!
내 저래?
내 저래?
내 저래?

내 저래?
도보거리
한다
내 저래?
내 저래?

고생한 선수들, 집에서
증수기 해줘야지
내 저래?
내 저래?

정치, 경제가
인포리니까
별...

대총은 건축 신경자치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밭코너
신규사시 투자 및 상담문의
▶ 서울본사: 02) 3445-0943
▶ 나주공장: 061) 337-0571

애인 속인 ‘가짜 중역’ 3억 갈취

○…외국계 IT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고 있다고 속

인 후 애인에게 3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공갈협의 등으로 청장행.

○…광주부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6)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사귀어온 A(여·32)씨에게 “회사 부도로 인해 은행에 13억원이 묶여 있는데 자급 보증금을 내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았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고급 이제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며 A씨에게 접근한 후 최근까지 47차례에 걸쳐 A씨는 물론 A씨의 가족과 친구에게 빌린 돈까지 받아 쟁쳤으며,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살인도 해봤다” “조심해라” 등 협박도 일삼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전과 10범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끌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예비군 훈련 불참 KIA 김진우 조사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됐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소속의 김진우(25)씨가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의해 불

집한 뒤 수배서인 남부경찰로 이송돼 1시간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고의적으로 훈련을 기피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경찰의 석방지휘를 받고 이날 오후 5시께 김씨를 풀어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정 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사의 약식기소를 거쳐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또 다시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지명수배되고 벌금형도 더욱 무거워진다.

한편, 김씨는 시즌 종이 지난해 7월 소속팀 KIA를 무단 이탈해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리를 당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모교인 광주 J고에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거나 대리로 훈련을 받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고의적으로 훈련을

기피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경

사의 석방지휘를 받고 이날 오후 5시

께 김씨를 풀어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정 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

정상 훈련에 불참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는 경찰 조사에서 “예비군 훈

련 통